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 명 진

양 난 미†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거부민감성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78개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또한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국내 4년제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6문항으로 이루어진 4개 요인이 확인되었는데 1요인은 '예기분노'로 거부를 기대할 때 느끼는 분노감, 2요인은 '예기불안'으로 거부를 기대할 때 느끼는 불안감, 3요인은 '과잉반응'으로 거부를 지각했을 때의 반응, 4요인은 '거부로 지각'으로 애매모호한 거부단서를 거부로 지각하는 것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4년제 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안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안모형의 수렴 타당도, 변별타당도, 증분타당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주 후 실시한 재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척도, 거부민감성, 거부, 요인분석, 대학생

* 본 연구는 박명진(2016)의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양난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 : 010-8744-1625, E-mail : behelper@gnu.ac.kr

인간은 각자 개인으로서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지칭된다. 인간관계에서 타인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주요 동기 중 하나인데 (Baumeister & Leary, 1995), 이러한 동기는 개인의 발달과 웰빙, 그리고 행동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taebler, Helbing, Rosenbach, & Renneberg, 2011).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부나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부경험은 개인의 인지·정서·행동적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정서적 불편감을 야기한다(Katja, Esther, Charlotte, & Babette, 2011). 거부경험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를 보이는데 어떤 이는 거부경험에 대해 평정심을 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이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서적인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영향이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거부민감성이다(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를 당했을 때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해 비교적 높은 불안과 걱정을 느끼는 반면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비교적 버림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수용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거부민감성의 개념은 Feldman과 Downey (1994)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사람마다 거부 경험에 대한 인지-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런 실패가 실제로 거부로 지각되면, 불안, 분노, 우울 등의 방어적 정서를 나타내게 된다(Ayduk, Downey, & Kim, 2001; 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이러한 거부민감성을 설명하기 위해 Levy 등(2001)의 연구에서 거부민감성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델은 거부를 인식하는 것과 거부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은 애착의 관점과 동일하게 초기 거부경험으로부터 발달되는 것이라 보았는데 초기 1차 양육자와 아동간의 문제는 개인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있어서 뿌리 깊게 내려져있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유아기 때 비일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자로부터 거부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부민감성모델은 그림 1과 같은 일련의 단계적 특징들을 지닌다. 첫째, 거부민감성은 유아기의 거부경험으로부터 발생이 된다. 하지만 유아기 때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수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거부경험이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약혼자에게 버림받아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은 다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경계심이 생기며, 거부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거부경험은 현재 또는 미래의 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방어적인 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둘째, 거부민감성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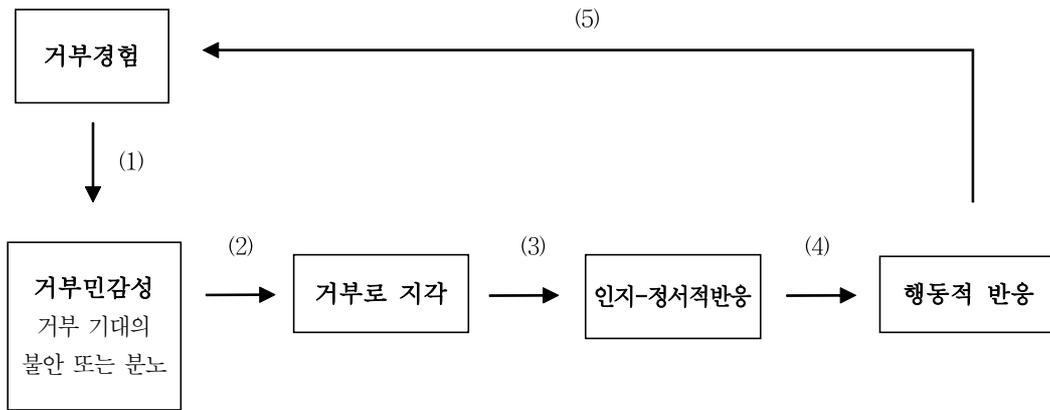


그림 1. 거부민감성모델 (Levy, Ayduk, & Downey, 2001)

의 핵심 가정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의 거부에 대한 기대는 거부의 가능성이 있을 때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활성화된 거부에 대한 기대는 높은 각성상태의 불안 또는 분노의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거부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부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거부의 가능성이 있는 상호작용은 위협하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가 일어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바짝 경계하게 되고, 거부가 가능한 단서에 대해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게 된다. 거부될 것에 대한 이러한 방어적인 반응은 거부 단서에 대한 과잉 경계를 촉진하고, 모호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서들도 쉽사리 의도된 거부 신호로 지각한다. 셋째, 거부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 신호에 과잉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나 맥락을 고려하는 등의 좀 더 복잡하고 침착한 인지적 처리를 하기가 힘들다(Metcalfe & Mischel, 1999). 일단 거부될 것이라 생각되면 상처, 분노, 자기 혹은 타인 비

난과 같은 인지-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 넷째, 인지-정서적 반응으로 인해 거부단서에 대하여 적대감, 지지의 철회, 질투, 낙담, 공격 등의 반사적이고 격렬한 정서적, 행동적 과잉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반응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하기가 쉽고,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상과, 철회의 위험이 높다. 다섯째, 거부에 대한 개인의 지각오류의 결과로 타인의 애매모호한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거부될 것이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낸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이는 거부를 유발하고, 결국 거부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지각하는 역치가 낮아지게 되고, 쉽게 거부로 지각하게 되는 거짓 경보를 내리기 쉽다. 거부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의 활성화는 타인의 악의 없는 행동마저 쉽게 거부로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부민감성은 Feldman과 Downey(1994)의 연

구에서 소개된 이래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어린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남성 동성애자 등 다양하고 많은 장르에서 연구되어 왔다. 거부민감성 연구의 초창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초기 아동기 때 부모에 의한 거부경험이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아동과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거부민감성은 특히 초기 아동기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이 높는데 아동은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거부 경험을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면 타인에게 지지나 수용을 구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이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발달시키게 되고, 이러한 거부를 피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불안과 위축이라는 행동반응을 나타내고(London et al., 2007), 거부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손은경, 2011).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동적, 회피적 또는 순종적 행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불안정에 영향을 준다(Downey & Feldman, 1996).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에 거부민감성은 공격성(Bondü & Krahé, 2015)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민감성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기저요인이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Feldman & Downey, 1994). 경계선 성격장애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대인관계, 급격한 정서의 변화, 정체성 혼란, 충동성 및 자기 파괴적 행동패턴으로 인하여 개인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든

장애를 지칭한다(APA, 1994). 이러한 경계선 성격장애와 거부민감성에 동일하게 기저하는 것은 바로 유기에 대한 공포이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다양한 증상 또한 거부민감성과 관련이 있는데 Stiglmayr, Grathwohl, Linehan, Fahrenberg와 Bohus(2005)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강한 혐오적 긴장의 원인이 거부, 사회적 소외로 인한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거부민감성은 외국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경계선 성격장애와 거부민감성은 국내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지영, 2012; 우희정, 2014; 하수홍, 장문선, 2013). 대인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신경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Barlow, Ellard, Sauer-Zavala, Bullis, & Carl, 2014).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기에 화를 내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류혜라, 박기환, 2014). 경험적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를 지각한 이후 적개심과 의기소침, 정서적 철회, 질투 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Baumeister & Leary, 1995). 또한 상대방에게 의수용이나 관계에 속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은 주관적 안정감을 감소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한다고 하였다(Bowlby, 1980). 이외에도 여러 선행연구들을 개관해 보았을 때, 거부민감성은 소진(Bianchi, Schonfeld, & Laurent, 2015),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의 ADHD(Bondü & Esser, 2014; Canu &

Carlson, 2007; Scharf, Oshri, Eshkol, & Pilowsky, 2014) 데이트 파트너에 대한 공격성(Downey, Feldman, & Ayduk, 2000)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발달적 관점에서 스스로 대인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대학생의 시기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권석만, 1997). Erikson(1963)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주요 과제를 친구나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친밀감의 획득이라고 보았으며, 자아의식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는 청년기에 동료집단과의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소속감과 인정이 자아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거부민감성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거부는 중요한 다른 사람 또는 사회적 단체에서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Williams, 2001),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 신호에 과잉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른 대안이나 맥락을 고려하기가 힘들고, 타인의 악의 없는 행동에서도 거부를 지각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단서에 의해 거부가 지각되면 상처받고 분노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고 부정적 감정을 폭발시켜 공격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철수해버리기도 한다(Levy, Ayduk, & Downey, 2001).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은 대인관계를 처음 맺거나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거부

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귀인 하도록 준비하기 때문에 거부를 지각할 때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Levy, Ayduk, & Downey, 2001).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발달단계상의 과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삶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강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Erikson, 196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거부에 대한 경험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거부 경험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거부에 대해 민감해지고, 이에 부적응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대인관계적 측면, 개인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은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성인 초기의 대인관계 형성은 인생의 전반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거부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제한되어 있다. 국내외의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연구를 개관해 볼 때, 국외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및 RSQ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성인용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가 있다(Downey, Berenson, & Kang, 2006). 국내에서의 성인용 거부민감성척도는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이복동(2000)

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척도는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RSQ척도에서 Downey와 Feldman(1996)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의 수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일반화된 기대와 불안을 거부민감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실시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와 같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거부를 예상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18가지의 상황을 구성하였다. RSQ의 측정은 거부민감성을 거부 또는 수용에 대한 기대와 예기불안의 두 차원에서 거부민감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는 일어날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 정도(예를 들어,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와 수용될 것에 대한 예상 정도(예를 들어,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 줄 것이라 예상된다)를 6점 척도로 표시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6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의 산출방식이 독특한데 Bandura(1986)의 기대-가치 모델에 근거해 각각의 상황에 관하여 거부에 대한 기대 점수와 불안 정도를 곱한 다음, 곱점수를 합하여 18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척도를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RSQ척도는 정식으로 번안되어 있지 않다.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 후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원척도와의 대등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단지 RSQ척도를 번안한 후 요인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와의 일치된 결과를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원척도에서 의도하려던 메시지가 동등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척도를 개발한 해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거부민감성의 구성개념이 번안된 척도의 구성개념과 같은지 확인할 수 없다. 둘째, 기존의 척도는 해외와 국내의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RSQ에서 제시된 18개의 상황이 국내에서 똑같은 거부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You go to a party and notice someone on the other side of room, and then you ask them to dance."와 같은 상황은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클럽에서 눈에 띄는 이성에게 다가가서 춤을 추자고 청한다."와 같이 번안되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번안이라 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클럽에서의 춤을 청하는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기에 이 문장이 적절한 거부단서를 제시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셋째, 척도의 구성개념에 따른 통계적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척도는 Bandura(1986)의 기대-가치 모델에 근거하여 거부민감성 점수를 산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각각의 상황에 관하여 거부에 대한 불안점수와 기대 점수를 곱한 점수를 합해 18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이 과연 통계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부에 대한 기대는 높는데 거부에 대한 불안이 낮은 사람과, 거부에 대한 기대는 낮으나 거부에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척도의 측정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점수를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같다고 볼 수 있는가? 또한 거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더라도 거부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람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Feldman과 Downey(1994)는 거부민감성을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거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더라도, 거부에 대한 불안이 낮다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구성개념에도 적합하지 않은 결과이다. 거부에 대한 기대와 거부에 대한 불안은 기대-가치 모델에 의한 곱연산으로 측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인을 독립적으로 보아 점수를 합연산으로 산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 거부민감성척도(ARSQ)를 3요인 모델로 구성하여 타당화한 Innamorati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위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타당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곱연산은 거부민감성의 점수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고, 점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문항의 응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넷째, 거부민감성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Innamorati 등(2014)의 연구에서 ARSQ척도는 3요인구조(거부민감성, 예기불안, 거부기대)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기대와 예기불안의 두 가지 차원을 합산한 거부민감성이라는 단일차원으로 보는 것보다 하위요인을 나누어 각각의 차원에서 거부민감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볼 때, 여러 선행연구들을 참고해 외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문항을 선정하고, 거부민감성의 요인구조를 재확인하여 신뢰롭고 타당한

거부민감성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부민감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은 불안정 애착과 강한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경, 2011; 이복동, 2000). 아동은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거부 경험을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면 타인에게 지지나 수용을 구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이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발달시키게 되고, 이러한 거부를 피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또한 부모와의 애착형성은 아동이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수용과 거부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성정아, 홍혜영, 2014),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로운 의사소통, 정서적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존재 가치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며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홍진이, 한기백, 2015). 둘째, 거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 경험 이후에 외로움이나 사회불안(김나영, 2009)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London 등(2007)은 슬픔이라는 개인의 감정이 타인과의 단절에서 온다고 말하며 거부민감성이 외로움과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거부민감성과 외로움이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박현지, 2012; 손은경, 2011; 이소영, 2013) 등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적게 경험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관계에서 거부 혹은 분리되는 경험을 한 경우, 친구 관계의 형성이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문제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고하며 이러한 청소년기의 거부에 대한 경험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 중 하나인 외로움과도 연관될 수 있다(Chen et al., 2004). 거부와 외로움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힌 Geller, Goodstein, Silver, Wendy와 Sternberg (1974)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확인되었다. 피험자들은 임의적으로 2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몇몇 피험자들은 두 사람에게 10분 동안 무시당하고, 다른 피험자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대화에서 무시당한 피험자들의 높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혼자라는 느낌과, 침잠해지는 느낌을 느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셋째, 거부민감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개관해보았을 때, 삶의 만족정도에 거부민감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거부민감성은 불안정애착, 사회불안, 공격성, 우울, 소진, 신경증, 경계선 성격장애, 테이트 폭력 등 삶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변인들과 정적 관련성이 있었다(류혜라, 박기환, 2014; 박희경, 2011; 이복동, 2000; Barlow, Ellard, Sauer-Zavala, Carl, Bullis, & Ellard, 2014; Bianchi, Schonfeld, & Laurent, 2015; Bondü & Krahe, 2015; Downey & Feldman, 1996; Downey, Feldman, & Ayduk, 2000; London et al., 2007). 이러한 변인들은 선행연구들을 확인하였을 때,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래, 이기학, 2015; 김민선, 서영석, 2015; 한상미, 이봉건, 2012).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부적응적인 정서 및 행동패턴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이 낮음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거부민감성과 삶의 만족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아니지만 심경원(2007)의 연구에서 거부민

감성과 삶의 만족이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부민감성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성인 초기인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형성은 인생의 전반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부민감성척도는 제한점이 있고, 이를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이론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거부민감성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척도의 이론적 요인구조 및 문항은 어떠한가?

둘째, 거부민감성척도의 요인 및 문항의 구성과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거부민감성척도의 개념타당도는 어떠한가?

넷째, 거부민감성척도의 증분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 1

방 법

구성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RSQ척도와는 달리 거부민감성 이론(Levy, Ayduk, & Downey, 2001)의 과정적 접근에 따라 거부민감성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인지적 차원에서 거부민감성은 거부를 기대하고 예상하며 악의 없는 사회적 단서에도 거부로 지각하게 하게 만든다. 또한 정서적 차원에서 거부를 기대하거나 예상하게 되면 개인에게 예기불안과 예기분노와 같은 핵심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정들이 행동적 차원에서 적대감, 철회, 질투, 좌절 등의 과잉반응들을 유발한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에 대한 구성개념을 첫째,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대한 예기불안, 둘째,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대한 예기분노, 셋째, 거부단서에 대한 예민하게 반응하여 애매모호한 단서에도 거부로 지각, 넷째, 거부를 지각한 후의 과잉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을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거부를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Feldman & Downey, 1994)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성개념을 포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를 기대하여 불안감이나 분노감을 느끼며, 거부에 대한 단서를 빠르게 감지하여 모호한 단서에도 예민하게 거부로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예비문항 선정

예비문항의 구성에는 1차로 이론에 기초하여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2차로 경험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최종예비문항을 선별하였다.

1차 예비문항 선정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근거로 거부민감성척도(RSQ)와 거부민감성 이론 등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70편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총 78개의 1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문항 선정에는 심리학교수 2명, 상담심리 박사과정 2명, 상담심리자격소지자 4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예비문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기초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거부민감성의 구성개념과 하위요인에 대한 개념에 수렴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척도개발이므로, 한국 대학생의 문화적 특성 및 일상생활을 고려하여 문항의 내용을 구성한다. 셋째,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문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구성하며,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예비문항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선별한다. 다섯째,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 문항은 사용하지 않는다. 1차로 선정된 예비문항에 경험적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문항을 보완하였다.

최종 예비문항 선정

다음으로 심리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국내 대학 석사과정 27명과 박사과정 2명을 평정자로 구성하여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념과 각 문항들을 제시하고, 각 문항이 거부민감성의 개념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와 문항의 이해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문항적절성의 응답방식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가 1점, '매우 적절하다'가 5점인 5점 척도였고, 문항 이해도의 응답방식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가 1점, '매우 잘 이해된다'가 5점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문항이 거부민감성을 표현하는데 적절하고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다음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이해도와 문항 적절성이 '보통이다'인 평균 3점을 기준으로, 3점보다 낮은 문항은 문항의 이해도와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박사과정 2명의 평정자들과 함께 이들 문항을 재검토한 후 의견이 엇갈리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신뢰도분석, 문항 총점 간 상관 등을 검토하는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예비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 공통요인을 추출하기에 앞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몇 개의 주성분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인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탁진국(2007)의 의견에 따라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크리 도표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제시된 요인수를 가지고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수를 확정하였다. 사용된 공통요인분석으로는 주축 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과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는 사교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거부민감성(예비)척도에 대해 서울과 대구,

부산의 3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소재의 4년제 대학생 228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연구동의를 응답하지 않은 2개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2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7세($M=21.61$, $SD=1.89$)였고 성별은 남자 107명(47.3%), 여자 118명(52.2%), 무응답 1명(0.4%)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31명(13.7%), 2학년 28명(12.4%), 3학년 109명(48.2%), 4학년 45명(19.9%), 5학년 이상 11명(4.9%), 무응답 2명(0.9%)이었다.

측정도구

거부민감성(예비)

거부민감성에 대한 4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식 5점 척도이고,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 과

문항분석

첫째, 문항의 평균값이 극단적이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그 문항의 분산이 작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탁진국(2007)에 따라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였다. 평균은 최소 2.14에서 최대 3.15였고, 표준편차는 최소 .81에서 최대 1.17이었다.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양호한 값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문항을 제거하지 않았다. 둘째, 상

표 1. 예비척도의 구조계수행렬

	문항내용	요인			
		1	2	3	4
P26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765	-.035	.089	-.033
P25	나의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한다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765	.062	.033	.026
P23	결국 나를 떠날 것이라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729	.122	-.023	-.028
P21	다뤘을 때, 내 사과를 받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709	-.070	.159	-.009
P29	거부 당했 다고 생각되면 화가 난다.	.701	-.024	.018	.143
P20	내 제안이 거절당할 것이라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572	.036	.119	.016
P30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에게 적대감이 느껴진다.	.487	-.041	.050	.291
P28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우울해진다.	.444	.149	.066	.187
P31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견디기 힘들다.	.429	.394	-.250	.253
P18	나의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할까봐 불안하다.	.003	.756	.006	-.004
P17	SNS나 메신저로 연락을 했을 때 답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002	.690	.100	.065
P15	배신 당하거나 버려질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211	.674	.011	.036
P9	나의 데이트 신청은 거절당할 것이다.	-.120	.642	.129	-.021
P14	다뤘을 때, 내 사과를 받아 주지 않을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43	.583	.063	-.051
P13	내 제안이 거절당할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203	.527	.184	.041
P4	SNS나 메신저로 먼저 연락을 했을 때 답이 늦다면 거절당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	-.029	.382	.356	.057
P8	내 앞에서 문을 쾅 닫고 나간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139	-.019	.713	-.079
P6	내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046	.001	.667	.196
P7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064	.040	.622	.078
P10	호의로 보답을 했을 때 받아주지 않는다면 거부당한 것이다.	.096	.182	.594	-.047
P5	나를 쳐다보고 한숨을 쉬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087	.123	.515	.170
P3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 바로 대답해주지 않는다면 거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045	.141	.498	.205
P1	나에게 소홀히 대하면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057	.200	.380	.226
P41	거부당할 것이라 생각되면 거리감이 생긴다.	.147	-.050	.091	.708
P37	거부당할까봐 관계를 먼저 끊으려는 경향이 있다.	-.047	.113	-.027	.707
P40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깊은 관계를 맺기 힘들 것이다.	-.032	-.068	.179	.689
P39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다시는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008	-.024	.088	.618
P36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경계심이 생긴다.	.273	.031	-.037	.551
P43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된다.	.217	-.005	.134	.495
P44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나를 비난하게 된다.	-.063	.399	-.039	.470
P42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상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복수하고 싶다.	.150	-.023	.074	.468
P34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내가 불쌍하게 느껴진다.	.272	.314	-.081	.407
P33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무기력해진다.	.324	.234	-.080	.390

관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간 상관이 .7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서로 유사한 문항이라고 판단된 11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셋째, 신뢰도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확인하였고, 문항 총점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은 없었고, 문항 총점 간 상관은 최소 .43에서 최대 .74로 나타나 양호한 상관 값을 보였기에 문항을 제거하지 않았다. 최종 삭제된 문항은 11개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된 문항은 33개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분석을 통해 선별된 33개의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검토한 결과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값은 .933,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χ^2 값은 4678.57($p < .001$)로 나타나 자료

표 2. 최종적도 문항의 요인계수 및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문항	요인			
		1	2	3	4
예기 분노	P26	.835	-.078	-.080	.085
	P25	.771	.063	.023	.015
	P23	.763	.090	.049	-.081
	P29	.673	.027	.120	.010
	P21	.671	-.034	.040	.070
예기 불안	P18	.008	.892	.030	-.074
	P9	-.112	.715	-.038	.118
	P17	.115	.611	.086	.036
	P15	.266	.512	.033	.079
과잉 반응	P39	-.027	-.013	.780	-.019
	P40	-.030	-.079	.748	.137
	P41	.155	.014	.694	.041
	P37	.053	.159	.588	-.049
거부 지각	P7	-.026	.034	.056	.735
	P6	.006	.047	.109	.712
	P8	.086	.013	-.057	.709
고유치		5.07	3.65	4.61	3.92
설명변량(%)		40.37	8.25	5.62	4.98
누적변량(%)		40.37	48.62	54.24	59.22

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함(양병화, 1998)을 알 수 있었다. 요인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1.0)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4개로 나왔으나, 스크리 도표를 고려하였을 때, 5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요인수를 2개에서 5개로 지정하여 공통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덧붙여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4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4요인은 1요인 9문항, 2요인 7문항, 3요인 7문항, 4요인 10문항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60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문항은 1요인에서 4개, 2요인에서 3개, 3요인에서 4개, 4요인에서 6개로 나타났다(표 1). 따라서 요인부하량이 낮다고 판단된 17개의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16개의 문항을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1요인은 40.37%, 2요인은 8.25%, 3요인은 5.62%, 4요인은 4.98%를 설명하였고, 최종요인은 전체변량의 59.22%를 설명하였다. 1요인은 예기분노, 2요인은 불안, 3요인은 과잉반응, 4요인은 거부지각으로 명명하였다. 4요인은 Cronbach's α 는 각각 1요인 .88, 2요인 .82, 3요인 .83, 4요인 .80, 전체 .91으로 전체문항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2

방 법

확인적 요인분석 및 척도 타당화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의 요인구조가 다른 표집에서도 타당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도 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기본적인 표준화된 카이제곱(χ^2/df)과 표본크기의 민감성과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해 RMSEA, TLI, CFI, GFI를 확인하였다. χ^2/df 은 χ^2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배병렬, 2011). 일반적으로 2.0~3.0 수준이면 적절한 모델로 판단된다(문수백, 2009).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이하 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되며(Hu & Bentler, 1999)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G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배병렬, 2011). 다음으로 각 요인들에 대한 개념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에는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유의하면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가 .70이상일 경우가 좋고,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ϕ^2)을 상회할 때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11). 마지막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기존의 RSQ척도와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를 투입하여 증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거부민감성(예비)척도에 대해 서울과 대전, 부산의 3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소재의 4년제 대학생 201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연구동의에 응답하지 않은 1개의 자료와 불성실한 응답 8개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9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8세($M=21.47$, $SD=1.97$)였고 성별은 남자 108명(56.3%), 여자 83명(43.2%), 무응답 1명(0.5%)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30명(15.6%), 2학년 51명(26.6%), 3학년 68명(35.4%), 4학년 40명(20.8%), 5학년 이상 3명(1.6%)이었다.

측정도구

거부민감성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결정한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을 묻는 총 1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맞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예기분노 .89, 예기불안 .75, 과잉반응 .84, 거부지각 .74, 전체 .91으로 나타났다.

RSQ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Downey와 Feldman(1996)에 의해 개발된 RSQ를 이복동(200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거부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인 초기의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18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가 일어날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 정도(예를 들어,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와 수용될 것에 대한 예상 정도(예를 들어,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 줄 것이라 예상된다)를 6점 척도로 표시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6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거부민감성 점수는 각각의 상황에 관하여 거부에 대한 기대 점수와 불안 정도를 곱 점수로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다. Downey와 Feldman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애착

불안정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 등(1998)이 '불안'과 '회피'의 두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도록 구성한 EC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을 개정한 ECR-R(Fraley, Waller, & Brennan, 2000)을 김성현(2004)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정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 상에서 자기 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이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불안애착 .91, 회피애착 .94로 나타났고 김성현(2004) 연구에서는 .89,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 .89로 나타났다.

외로움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Rusell, Peplau 및 Ferguson(1978)의 UCLA 외로움 척도를 Rusell, Peplau 및 Cutrona(1980)가 개정한 것을 김교헌과 김지환(1989)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로움을 긍정방향과 부정방향 각각 10개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 상에서 자기 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느끼지 않음(1)'에서 '자주 느낌(4)'으로 평정된다. Rusell, Peplau 및 Cutrona(198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 김교헌과 김지환(1989)의 연구에서는 .8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93으로 나타났다.

삶의만족도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Diener 등(1985)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한국 거부민감성척도의 구성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4요인의 모델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설정된 측정모형의 자유모수의 수는 38이었고, χ^2 은 183.103($df=98, p<.001$)으로 모집단의 모델오류가 0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χ^2/df 은 1.868로 2보다 낮았기에 좋은 모델이라 볼 수 있으며, GFI는 .896, CFI는 .942, TLI는 .929로 GFI는 .90을 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보였고, RMSEA는 .067로 보통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항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하며,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이 낮은 문항과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가 높은 문항을 제거하면서 모형 적합도를 확인 하였다. 그 결과 P9번 문항을 제거한 대안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χ^2 은 113.045($df=84, p<.05$)으로 모집단의 모델오류가 0이라는 영가설은 이전 모델처럼 기각되었으나, χ^2/df 은 1.346로 더욱 좋아졌으며, GFI .929, CFI .979, TLI .973으로 모두 1에 근접한 값으로 개선되었고, RMSEA도 .043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대안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안모형의 각 문항의 표준화요인부하량은 .57에서 .86의 값을 보였다. 4개 하위요인 간의

결 과

표 3. 거부민감성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수	χ^2	df	p	χ^2/df	GFI	CFI	TLI	RMSEA
38	183.103	98	.000	1.868	.896	.942	.929	.067

표 4. 거부민감성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수	χ^2	df	p	χ^2/df	GFI	CFI	TLI	RMSEA
36	113.045	84	.019	1.346	.929	.979	.973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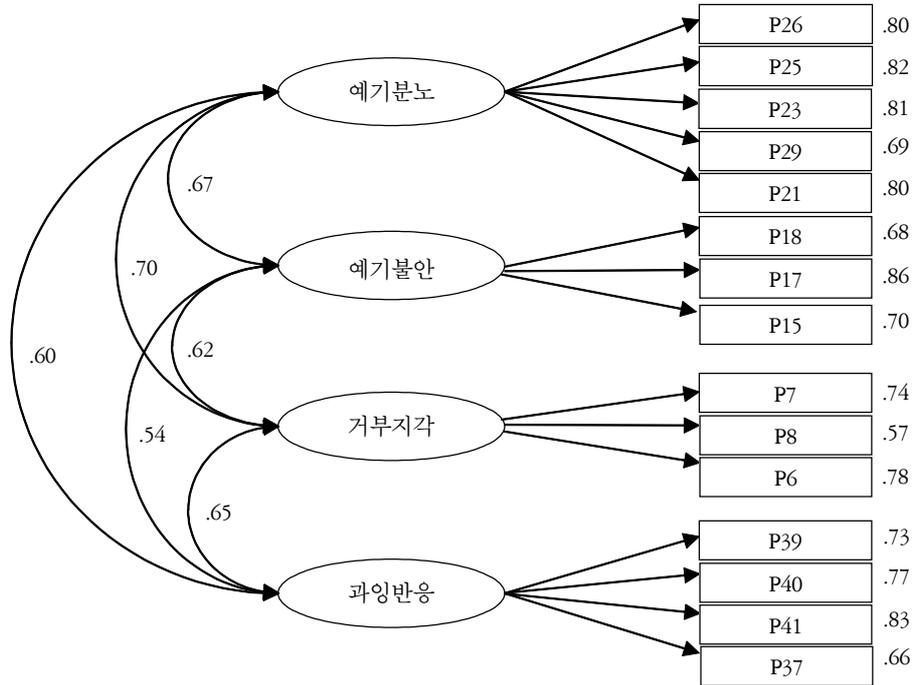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예기분노는 거부지각과 $.70(p < .001)$, 과잉반응과 $.60(p < .001)$, 예기불안과 $.67(p < .001)$ 의 상관을 보였고, 거부지각은 과잉반응과 $.65(p < .001)$, 예기불안과 $.62(p < .001)$ 의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과잉반응은 예기불안과 $.54(p < .001)$ 의 상관을 보였다. 모든 요인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안모형의 측정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개념타당도 검증

다음으로 대안모형의 통계치를 이용하여 수렴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C.R.(critical ratio)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요인부하량은 .57에서 .86사이로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렴타당도를 보였다. 개념 신뢰도 CR의 값은 .94에서 .98의 값을 보였기에 모두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VE값이 모두 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표 5.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유의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잠재변인	지표변인	공통 변량	경로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AVE	CR
			표준	비표준				
예기분노	→ p26	.65	.80	1.00			.62	.98
	→ p25	.68	.82	.96	.08***	12.57		
	→ p23	.65	.81	1.02	.08***	12.31		
	→ p29	.48	.69	.87	.09***	10.11		
	→ p21	.64	.80	.98	.08***	12.12		
예기불안	→ p18	.47	.68	1.00			.56	.94
	→ p17	.73	.86	1.36	.15***	9.16		
	→ p15	.48	.69	1.19	.15***	8.18		
거부지각	→ p7	.54	.74	1.00			.49	.95
	→ p8	.33	.57	.82	.12***	6.99		
	→ p6	.61	.78	1.04	.12***	9.00		
과잉반응	→ p37	.43	.66	1.00			.56	.96
	→ p41	.69	.83	1.31	.14***	9.25		
	→ p40	.59	.77	1.26	.14***	8.76		
	→ p39	.54	.73	1.14	.13***	8.48		

주. *** $p < .001$

표 6. 판별타당도 검증

개념 간 상관			ϕ	ϕ^2	판별타당도 해석	
예기분노	↔	예기불안	예기분노=.62 예기불안=.56	.67	.45	있음
예기분노	↔	거부지각	예기분노=.62 거부지각=.49	.70	.49	있음
예기분노	↔	과잉반응	예기분노=.62 과잉반응=.56	.60	.36	있음
예기불안	↔	거부지각	예기불안=.56 거부지각=.49	.62	.38	있음
예기불안	↔	과잉반응	예기불안=.56 과잉반응=.56	.54	.29	있음
거부지각	↔	과잉반응	거부지각=.49 과잉반응=.56	.65	.43	있음

제곱값(ρ^2)을 상회하였기에 모든 개념간의 판별타당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증분타당도 검증

거부민감성척도의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기 전 먼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확인 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거부민감성 척도와 RSQ는 유의한 정적 상관($r=.58, p<.01$)이 있었고,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확인된 불안애착($r=.64, p<.01$)과 외로움($r=.44, p<.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r=-.31,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거부민감성척도의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거부민감성과 삶의 만족의 상관, 공차,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으로 설정하고, 1단계에서 RSQ척도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거부민감성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RSQ척도는 9%의 설명량을 보였고, 2단계에서 거부민감성이 2% 증가된 설명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삶의만족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고, 이 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거부민감성척도는 RSQ척도가 불안애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7. 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인들 간 상관

	거부민감성	RSQ	불안애착	외로움	삶의만족
거부민감성	-				
RSQ	.58**	-			
불안애착	.64**	.51**	-		
외로움	.44**	.43**	.53**	-	
삶의 만족	-.31**	-.31**	-.36**	-.41**	-

주. ** $p<.01$, 거부민감성, RSQ, 불안애착, 외로움, 삶의 만족은 각 척도의 총점을 나타냄.

표 8. 불안애착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D	β	R^2	ΔR^2
불안애착	1단계					
	RSQ	-.074	.018	-.297	.088	
	2단계					
	RSQ	-.048	.022	-.192	.109	.021*
	거부민감성	-.276	.137	-.179		

주. * $p<.05$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거부민감성 민감성 척도의 전체 문항의 총점 간 상관계수는 .86($p < .01$)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들의 상관계수는 예기분노 .86($p < .01$), 예기불안 .57($p < .01$), 거부지각 .77($p < .01$), 과잉반응 .72($p < .01$)으로 나타났다. 예기불안을 제외한 전체 총점 간 상관계수 및 하위 요인에서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거부민감성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개관하여 거부민감성에 대한 구성개념을 탐색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거부민감성을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론적으로 분류된 4가지 차원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타당도 검증 결과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거부민감성척도의 증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거부민감성 민감성 척도의 전체 문항의 총점 간 상관을 통해 검사-재검사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거부민감성의 구성개념을 분류하여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

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5문항, 4요인구조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요인구조의 타당성과 높은 내적합치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거부민감성이론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며, 예기불안과 거부기대의 차원에서 확장되어 거부민감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 주는 자료이다. 거부민감성은 불안의 감정 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며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인해 거부를 지각하는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주어 사소한 단서에도 거부로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이 거부단서에 과잉반응하게 될 때, 불편감을 호소하게 된다. 이러한 거부민감성에 대한 이해는 상담 및 치료의 장면에서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경험적 분석을 통해 거부민감성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각 하위요인과 거부민감성 문항 총점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거부민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인은 예기분노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거부민감성의 핵심감정인 예기불안 뿐만 아니라 예기분노를 포함시킴으로써, 연인간의 이별통보로 인한 살인 또는 폭력 사건(중앙일보, 2015), 거부민감성이 공격성(강은영, 2013)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데이트 폭력 등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부민감성척도의 타당화 분석을 위해 불안애착, 외로움, 삶의 만족과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거부민감성은 불안애착과 외로움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기에 대학생들의 거부민감성척도의 구성타당도가 검증이 되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불안애착과 외로

움, 삶의 만족과 관련성이 있다는 여러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와 전반적인 삶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거부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RSQ척도에서는 18가지의 상황에 대한 거부에 대한 불안점수와 기대점수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18가지의 상황은 각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거부를 예상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상황은 거부를 기대할 수 있는 해외의 일상적인 상황이기에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기 위해 국내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 상담심리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3단계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를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및 타당화를 실시하였기에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한 척도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RSQ척도에 비해 거부민감성 점수산출 방법이 개선되었다. 기존의 척도는 Bandura(1986)의 기대-가치 모델에 근거하여 거부민감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각각의 상황에 관하여 거부에 대한 불안 점수와 기대점수를 곱한 점수를 합해 18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구성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구성개념을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합연산으로 거부민감성 점수를 산출하기에 점수계산이 용이하며, 하위요인 별 점수 산출

도 가능하기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본 연구결과와 안정적인 통계치는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는 앞으로 국내의 거부민감성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기대하며, 이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를 맺고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러 관계적 측면을 파악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활용되어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표집으로 하였기에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기 힘들며, 추후에 대학생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척도를 사용할 때에는 다집단 분석을 통한 집단 동일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한된 지역에 설문을 실시하였고, 사례수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최소 요건은 만족하나 풍부하지 않았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의 성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시 모형의 적합도 개선을 위해 대안모형을 사용하였기에, 추후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예기불안 요인 중 p9번 “나의 데이트 신청은 거절당할 것이다.”라는 문항을 포함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p9번 문항이 제거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석가능성과 통계적 지표를

고려한 결과이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또는 표본에 따른 차이 일 수도 있기에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P9번 문항에 대한 제거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검증된 요인구조에서 거부할 것이라 기대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분노감을 나타내는 '예기분노' 요인이나 거부를 지각함으로써 나타나는 '과잉반응' 요인은 거부민감성으로 인한 결과변인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을 거부민감성이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았기에 거부민감성의 이론적 과정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에서 결과변인을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 따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은영 (2013).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권석만 (1997). 인간관계 심리학(젊은이를 위한). 서울: 학지사.

김교현, 김지환 (1989). 한국판 UCLA 고독척도. 學生生活研究, 16, 13-30.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나래, 이기학 (2015). 대학생의 인정욕구, 사회적지지, 사회불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학회, 16(4), 245-264.

김민선, 서영석 (2015).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에 따른 집단분류와 직무소진, 삶의 만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25-445.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류혜라, 박기환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민지영 (2012). 거부민감성 및 부정적 정서강도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간의 관계: 주의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현지 (2012).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박희경 (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4.

손은경 (2011).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심경원 (2007). 낙관성이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 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우희정 (2014).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소영 (2013). 성인애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중앙일보 (2015). 남편·애인 손에 살해당한 여성 114명...목숨 건진 여성 95명, <http://news.joins.com/article/17307334>
- 탁진국 (2007). 심리검사(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한상미, 이봉건 (2012). 긍정심리치료가 노인들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4), 971-992.
- 홍진이, 한기백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67-389.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low, D. H., Ellard, K. K., Sauer-Zavala, S., Bullis, J. R., & Carl, J. R. (2014). The origins of neuroticism.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9, 481-496.
- Baumeister, R., & Leary, M.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ianchi, R., Schonfeld, I. S., & Laurent, E. (2015). Interpersonal rejection sensitivity predicts burnout: A prospective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5, 216-219.
- Bondü, R., & Esser, G. (2014). Justice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DHD symptom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4(2), 185-198.
- Bondü, R., & Krahe, B. (2015). Document Links of justice and rejection sensitivity with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41(4), 353-368.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ed int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 Canu, W. H., & Carlson, C. L. (2007). Erratum: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outcomes of

- young adult m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0(4), 435.
- Chen, X., He, Y., Oliveira, A. M., Coco, A. L., Zappulla, C., Kaspar, V., Schneider, B., Valdivia, I. A., Tse, H. C., & DeSouza, A. (2004). Loneliness and social adaptation in Brazilian, Canadian, Chinese and Italian children: a multi-national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5(8), 1373-138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owney, G., Berensom K. R., & Kang, J. (2006). Correlates of 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olumbia University*.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0,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 45-61.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New York, NY.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eller, D. G., Goodstein, L., Silver, M., Wendy, C., & Sternberg, S. (1974). On Being Ignored: The Effects of the Violation of Implicit Rules of Social Interaction.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37(4), 541-55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Innamorati, M., Balsamo, M., Fairfield, B., Fabbicatore, M., Tamburello, A., & Saggino, A. (2014).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A comparison of three factor models.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2014, 1-10.
- Katja, S., Esther, H., Charlotte, R., & Babette, R. (2011).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8, 275-283.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 In M. R. Leary (Eds.),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 Adolescence*, 17(3), 481-506.
- Metcalf, J., & Mischel, W. (1999). A hot / cool-system analysis of delay of gratification: Dynamics of willpower. *Psychological Review*, 106(1), 3-19.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90-294.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m,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charf, M., Oshri, A., Eshkol, V., & Pilowsky, T. (2014). Adolescents' ADHD symptoms and adjustment: The role of attachment and rejection sensitiv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4(2), 209-217.
- Staebler, K., Helbing, E., Rosenbach, C., & Renneberg, B. (2011).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8, 275-283.
- Stiglmayr, Ch., Grathwohl, T., Linehan, M., Fahrenberg, J., & Bohus, M. (2005). Aversive tension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computer-based controlled field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1(5), 372-379.
- Williams, K. D. (2001). *Ostracism*. New York: Guilford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6. 07.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0. 22

게 재 결 정 일 : 2016. 12. 12

Valid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Myung-Jin Park

Nanmi Y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a Korean version of the rejection sensitivity scale. After thoroughly review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 rejection sensitivity scale of 78 items was produced. 228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a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structed and utilized resulting in four factors consisting of 16 items each. Factor 1 related to expected anger and factor 2 focused on expectation anxiety. Factors 3 and 4 focused on overreaction and rejection perception, respectively. In sequenc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validity analysis were carried out on data obtained from 201 of the selected stud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goodness-of-fit for the alternative model, and validity was established. A retest, conducted four weeks later, confirmed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model. Academic significanc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rejection sensitivity scale, rejection sensitivity, rejection, factor analysis, college students